

평택, 신실크로드의 출발점: 길 위에서 길을 묻다

1. 길이 열린다: 동서로 통하는길
2. 실크로드: 문명의 연계/플랫폼
3. 신실크로드의 등장: 일대일로
 - 1)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
 - 2) 프로젝트 추진 및 경과
4. 평택, 평택항, “새로운 길을 열다”
 - 1) 한국의 대응전략
 - 2) 평택, 평택항의 대응과 비전



박기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
대만국립정치대학교 법학박사
현)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현) 국제교육통상연구소 CEO
현) 경기도투자유치자문위원
현) 황해경제자유청 자문위원
현) 북경물자대학교 객좌교수, 해외원장
현) 산둥과학기술대학교 법대 객좌교수

연락처: 010-7149-8998

메 일: basis63@hanmail.net

홈페이지: <http://ient.or.kr/>

블로거 : “한중교육문화연구소”

Wechat: basis63

I. 길이 열리다 : 고대 실크로드(SILK ROAD)

한나라와 흉노, 최초의 실크로드



한반도와 실크로드: 경주 괴릉의 소그드인 무사상



- 최초의 실크로드: 농경문화의 한족에 대한 유목민인 흉노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한무제가 자신의 부하 장군을 서쪽으로 파견
- 실크로드의 무역상 : 소그드인은 당시 서역이라 불리던 중앙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이란계 스키타이 민족의 무역로 간주됨
- 소그드인은 유태인, 중국인과 함께 세계 3대상인

II. 실크로드 : 문명의 연계(connectivity)와 플랫폼(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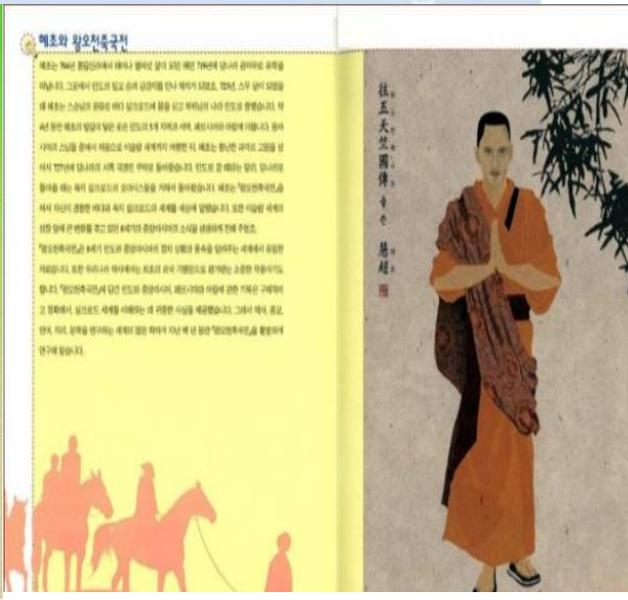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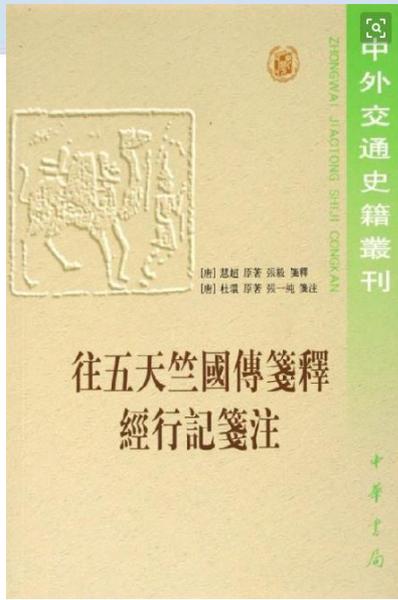


장보고(790-846):东亚海上丝绸之路的开创者(동아시아 해상실크로드 개척자) : 고향 완도



정화: 명나라 시기 함대를 이끌고 7회에 걸쳐 30개국 순방

해초는 먼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후 이후 지금의 해상 실크로드 길을 따라 인도에 들어갔으며, 돌아올 때는 육로를 이용했다. 즉,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다 경험



Ⅱ. 실크로드 : 문명의 연계(connectivity)와 플랫폼(platform)

무역



불교



기독교



마니교



힌두교



이슬람교



Ⅲ. 신 실크로드의 등장: 시진핑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현재의 지도자인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경제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는 것을 '중국의 꿈(中國夢)'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거나 시행중에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당나라와 명나라 시대 육로와 해로의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 계획의 토대가 바로 '일대일로(一帶一路)'로서 육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가 그것이다.



Ⅲ. 신 실크로드의 등장: 시진핑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제2 유라시안 남부 횡단철도

구간: 중국 신장(新疆) 카스(喀什)~로테르담
 건설기간: 현재 계획 중(중국 내 구간은 올해 착공)
 총 연장: 미정
 주요 경유국가: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란~터키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Trans-Siberian Railway)

구간: 블라디보스토크~로테르담
 건설기간: 1891~1916
 총 연장: 약 1만3000km(러시아 구간 9289km)
 주요 경유도시: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로프스크~울란우데~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키~에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브레스트~로테르담

유라시안 남부 횡단 철도

구간: 중국 장쑤(江蘇)성 련윈강(連雲港)~로테르담
 건설기간: 1991~2011
 총연장: 10900km
 주요 경유도시: 련윈강~시안(西安)~우루무치~
 아스타나~바르샤바~민스크~뒤스부르크



중국이 일대일로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이다. 일대일로는 철도, 도로, 해운, 항만과 같은 기초 인프라를 만드는 데만 1조 400억 위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대일로 주변 국가와 지역 인구는 약 44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63%이고 경제규모(GDP)는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23.9%를 차지한다.

중국이 고속성장을 끝내고 새로운 경제전환기에 접어들어 신상타이(新常态) 하에서 추진하는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진핑은 2013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중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이어서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는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기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

Ⅲ. 신 실크로드의 등장: 시진핑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중국이 진출한 세계 주요 항구

2012~2014년

방글라데시(চিতা공항), 미얀마(스트웨항), 탄자니아(바가모요항), 예멘(모카항, 아덴항), 싱가포르(싱가포르항), 이탈리아(나폴리항), 이스라엘(하이파항), 벨기에(제브뤼헤항, 안트베르펜항)

2015년

이집트(제2 수에즈운하),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항), 파키스탄(과다르항), 북아프리카(지부티항)

2016년

스리랑카(콜롬보항), 그리스(피레우스항)

2017년

러시아(아르한겔스크항), 리투아니아(클라이페타항), 노르웨이(시르케네스항), 인도네시아(탄중프리오크항), 말레이시아(물라카게이트웨이항, 쿠알라링기항, 페낭항, 관탄항), 스리랑카(함반토바항), 브라질(파라나구아항)

2018년

호주(뉴캐슬항)

2013년 2월 파키스탄 과다르항 운영권을 직접 인수해 항구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추가 개발권도 확보하였다. 만약 페르시아 만에서 생산된 원유를 과다르항을 거쳐 중국 서부 신장자치구로 가져오면 중국은 기존의 말라카 해협을 돌아오는 수송루트를 9,000km 단축할 수 있다. 이 구간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87억 달러를 투자해 치타공 항구 건설에도 합의하였고, 탄자니아와 바가모요 항구 개발을 위한 투자 개발 협정도 2013년 3월에 체결하였다.

또한 2013년 11월 예멘과 아덴 항, 모카 항의 컨테이너 부두 확장을 위해 5억 달러의 차관제공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은 아프리카 해상 요충지인 예멘의 모카항과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아덴항의 운영권을 확보하였다.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도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20개의 계약을 2014년 9월에 체결하였으며 전체 투자액이 14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 개발지의 3분의 1을 중국이 보유해 개발할 예정이다. 리커창 총리는 그리스를 방문해 46억 달러 규모의 무역 및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그리스의 피레우스항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지중해를 통한 유럽과 아랍지역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해상 실크로드의 확대를 위한 중국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15년에는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항, 물라카게이트웨이항, 페낭항과 북아프리카의 지부티항을, 그리고 올해는 호주의 뉴캐슬항구의 지분 50%를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시진핑의 '중국의 꿈'과 이를 이루기 위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또한 도전이기도 하다. 만약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경제에 휩쓸려 가거나 혹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될 수도 있다.

Ⅲ. 신 실크로드의 등장: 시진핑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중국의 실크로드 전략 추진 경과〉

시기	내용	계기/장소
'13.9.7	시진핑, “실크로드경제대(帶)” 처음 제출	카자흐스탄 방문 강연
'13.10.3	시진핑,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처음 제출	인도네시아 방문 강연
'13.12.13	시진핑, 실크로드경제대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 지적	중앙경제공작회의 연설, 6개 정책과제중 하나로 지적
'14.2.6	러시아 아시아-유럽횡단철도와 “일대일로” 연계 공동인식 달성	시진핑-푸틴 모스크바 회담
'14.3.5	〈정부업무보고〉에서 ‘15년 중점 정책으로 지정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보고
'14.11.8	시진핑, 실크로드기금 400억 달러 출자 선언	APEC정상회담
'15.2.1	“일대일로” 건설 지도소조 구성 및 공작회의 - 구성: 조장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부총리 및 부조장 4명 인선 - 2015년 및 차후 일대일로 주요사업 과제 제시	장가오리(張高麗) 부총리
'15.3.28	일대일로 종합 정책 문건 공포 - 〈실크로드경제대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 장기전망과 행동 공동 추진〉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 공동 발표
'15.12.25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AIIB)〉 설립	
'16.8.17	〈일대일로 건설사업 좌담회〉 개최	베이징
'17.5.14~15	〈일대일로 고위층포럼〉 개최	베이징

일대(一帶 One belt)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신 육상 실크로드'를
일로(一路 One road)는 동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 현대판 新 실크로드

일대일로가 구축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의 60여 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이 구성 된다.

일대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경제벨트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공정으로

2049년 완성을 목표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음

연계국: 26 개국 개발권: 6개 권역 참여국: 65 개국	전세계 인구의 61.9%(44억 명)	세계경제규모의 30.9%(21조 달러)	
국가 	인구 	규모 	

IV. 평택, 평택항, “새로운 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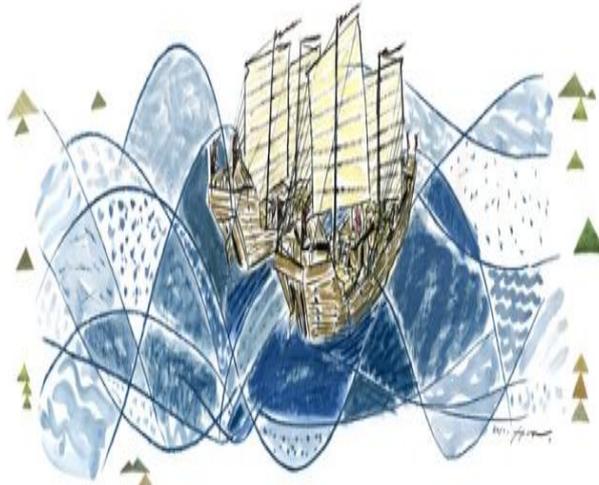
‘일대일로’ 정책의 활용



-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텐진,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섬서 등 11개 지역에 설립되어 한국의 거점 투자지역과 연계용이, 자유무역시범구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 유망진출 업종 분석이 필요

- 일대일로가 중국의 공산당 당장에 삽입되어 향후 일대일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 한국도 중국의 국자전략인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구상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함
- 평택항도 일대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 연해 및 중서부 지역에 형성된 11개 자유무역시범구에 자율권 확대를 결정
 - : 자유무역항 건설과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가능 전망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의 연계 발전 방안도 모색해야 함

IV. 평택, 평택항, “새로운 길을 열다”



평택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실크로드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길은 어느 누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잘 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평택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길위에서 길을 물을 때가 온 것 같다.

감사합니다

